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바람이 많이 불다가 따뜻해짐

제목 : 민채의 하루 일상생활

나는 오늘 오전 10시에 일어났다 쌀밥에 열무김치, 떡갈비를
 먹었다 햄스터(취과에 속한다)에게 먹이를 주고 종로 떡지름
 접었다. 왜냐하면 우리반에서 떡지름기 시합을하여 우리반
 떡지름기 1등을 뽑기 때문이다 지루하게 1시간을 지나쳤다
 12시가 되자 언니가 잠에서 깨어났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벌써언니는 일어났을 것이다.(아버지는 회사를 가셨다) 언니와
 미로찾기 게임을 하였다. 2시가 되어서야 점심을 먹었다. 엄마께서
 볶음밥에 달걀후라이를 얹게 올려(달걀) 즉석서 오므라이스를
 먹었다. 맛은 달콤하고 정말 맛있었다. 먹고난 후 인형과
 함께 놀았다. 특별하고 지루해서 클라스데코를 했다.
 언니가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 그런데 자꾸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똥", "네?" 이 말만 계속 반복하였다. 아버지께서
 2~3분 후에 집에 오셨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배드민턴을
 치자고 밖에 나가자고 하셨다. 나는 좋아했는데 언니는
 궁시렁~ 궁시렁~ 거리며 싫어했다. 엄마까지 다 나왔다.
 아빠·나, 엄마·언니 3인 한 10분 정도 치다가 엄마·나,
 아빠·언니로 하여서 20분 치다가 아이스크림 내기로
 결정하여 언니·나 VS 엄마·아빠로 대결을 하였다. 엄마·아빠께서
 지셔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셨다. 언니는 더워서야 아까
 아이스크림을... 나는 병파 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언니와 나는
 기분이 좋은 채로 집으로 갔다. 나는 Wii 라는 게임을 하였고,

